



# “올해로 데뷔 25년 전국서 팬 만나요”

(TV 화면 캡처)

## 고양·군산 등 전국 순회 콘서트 알앤비·K팝·트로트까지 풍성

“다리라는 것은 서로를 연결해주는 것이잖아요? 제 인생의 새로운 다리를 건너가는 기분입니다.”

가수 박정현은 지난 20일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린 단독 콘서트 ‘더 브리지(The Bridge)’에서 “데뷔 25주년이라니 정말 어마어마하다”며 음악 인생 사반세기를 맞은 소감을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에게도 정말 뜻깊은 해인 만큼, 여러분에게도 그런 시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꼭 하나하나 들으실 때마다 노래의 새로운 면을 발견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고백했다.

박정현은 지난 1998년 데뷔해 특유의 맑은 목소리, 섬세한 표현력, 빼어난 가창력을 무기로 ‘꿈에’, ‘편지할게요’ 등의 히트곡을 배출했다. 그는 이날 콘서트에서도 이러한 자신의 매력을 마음껏 펼쳐 보였다.

박정현은 마치 공연명처럼 설치된 무대 위 다리에서 최근 발표한 데뷔 25주년 기념 정규 10집 타

이틀곡 ‘그대라는 바다’를 부르며 등장했다. 무대 뒤 3층 높이로 세워진 거대한 LED 전광판에는 해가 떠오르는 바다의 풍경이 나타나 신비로움을 더했다. 박정현은 라이브 밴드의 반주에 맞춰 전매특허인 꼬꼬리 같은 맑은 음색과 작은 체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힘 있는 목소리로 장내를 휘어잡았다.

관객들은 박수하는 것도 잊은 채 박정현의 음정 하나하나에 집중했다. 공연장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바스락 바스락’ 하는 관객의 부채질 소리만 간간이 들렸다.

박정현은 록 버전으로 경쾌하게 편곡한 ‘P.S 아 이 러브 유(I Love You)’와 ‘편지할게요’, ‘미장원에서’ 등의 히트곡은 물론 ‘온리 원(Only One)’ 같은 신곡들도 들려줬다. 한 곡 한 곡 마칠 때마다 관객을 향해 90도 허리를 숙였고, 객석에서는 떠나갈 듯한 박수가 이어졌다.

그는 특히 알앤비와 발라드에 머무르지 않고 블랙핑크 지수의 ‘꽃’과 데이식스의 ‘에어’ 같은 K팝도 들려줘 관객을 깜짝 놀라게 했다. 지수의 ‘꽃’ 포인트 안무도 해 보이면서 어색한 듯 웃었다. “5년 넘게 라디오 DJ를 하면서 K팝의 매력에 푹 빠졌다”고 했다.

박정현은 “신인 시절 (내 노래가) 10곡 밖에 없어서 남는 (공연) 시간은 커버곡을 주구장창 부른

기억이 있다”며 “(미국에서) 한국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요를 잘 몰라 노래방에서 연습한 기억이 난다”고 되돌아봤다.

박정현은 이날 트로트 ‘비 내리는 영동교’까지 편곡해 불렀다.

한 경연 프로그램에서 부른 곡인데 당시 처음 도전하는 트로트에 한 때 마음고생도 했다고 한다. 그의 고민을 들은 대선배 설운도는 박정현의 방식으로 부르라고 용기를 북돋아 줬다.

박정현은 데뷔 이래 유독 ‘나는 가수다’, ‘비긴 어게인’, ‘불후의 명곡’ 같은 TV 음악 예능과 인연이 깊었다. 이들 프로그램에서 폭발적인 가창력을 앞세워 선보인 커버곡들은 그의 또 다른 히트곡이 됐다.

그는 이 가운데 출연 가수들이 혼신의 힘을 쏟기로 유명했던 ‘나는 가수다’를 가리켜 “더 넓은 관객과 연결해준 대교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박정현은 이날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첫인상’, ‘샹들리에(Chandelier)’, ‘섬원 라이크 유(Someone Like You)’ 등 이들 프로그램에서 부른 익숙한 노래도 무대에 올랐다. 박정현은 부산, 대구, 군산, 고양에서 콘서트의 열기를 이어간다. /연합뉴스

## 안방극장, 뉴트로 타고 추억 소환

1990년대 애니 ‘영심이’  
지니TV, 드라마로 각색  
인물 차용·장면에 애니 삽입

1970년대 히트작 ‘수사반장’  
주인공 박영한 청년 시절 그려  
MBC, 하반기 방영 예정

어른이 된 영심이의 일과 연애 이야기, ‘수사반장’ 박영한의 청년 시절 이야기. 방송가에서 ‘뉴트로’(복고를 새롭게 즐기는 경향) 열풍을 타고 1970~1990년대 인기를 끌었던 콘텐츠를 잇달아 재가공하고 있다.

21일 방송가에 따르면 지난 15일 ENA에서 처음 방송된 지니TV 드라마 ‘오! 영심이’는 1990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영심이’의 주인공 오영심(송하은 분)이 30대가 돼 예능국 PD로 일하는 내용을 그린다.

드라마와 원작의 설정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만화가인 아버지 오대광(송영재)이 둘째 딸 영심을 주인공으로 만화를 그렸고, 그 만화가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영심이’라는 설정이다. 애니메이션에서는 영심의 아버지 오순창이 회사원으로 등장한다.

첫 방송에서는 영심이 애니메이션 속 주인공이 된 비화를 다뤘다. 아울러 애니메이션에 그려진 모습 때문에 영심이 주위의 편견에 시달렸다고 토로하는 내용도 담겼다.

드라마는 중간중간 애니메이션을 삽입해 시청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인물도 그대로 차용했다. 원작의 남자 주인공인 왕경태(이동해)가 드라마에 등장해 영심과 재회한다.

오영심을 연기한 배우 송하은은 지난 15일 제작발표회에서 “어렸을 때 우리가 알던 그 영심이가 맞고, 20년 후에 이 영심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소개했다.

시청자들은 블로그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드라마 속 영심이가 애니메이션 속 영심이를 떠올리게 한다”, “어린 시절 애니메이션을 재미있게 봤던 기억이 떠오른다” 등의 평가를 남겼다.

10부작인 ‘오! 영심이’는 1회 0.6%, 2회 0.4%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MBC는 올해 하반기 범죄 수사 드라마 ‘수사반장’의 프리퀄 드라마인 ‘수사반장 1963’(가제) 촬영을 시작한다.

이 드라마는 ‘수사반장’보다 10년 앞선 1960년대를 배경으로 주인공 박영한의 청년 시절 성장기를 다룬다.

배우 최불암 주연의 원작 ‘수사반장’은 1971년부터 1989년까지 총 880회가 방송



1971~1989년까지 총 880회가 방송된 배우 최불암 주연의 원작 ‘수사반장’.



1990년 방영된 애니메이션 ‘영심이’를 그린 지니TV 드라마 ‘오! 영심이’.

됐고 최고 시청률 70%를 넘어 한국 범죄 수사물의 효시로 꼽힌다.

‘수사반장 1963’에서는 배우 이재훈이 수사반장이 되기 전 청년 박영한으로 변신해 성장기를 그릴 예정이다. 이재훈은 앞서 드라마 ‘모범택시’ 시리즈에서 피해자를 대신해 가해자들에게 복수하는 김도기 역할을 맡아 액션 연기를 선보인 바 있다. /연합뉴스

## BTS 지민 참여 ‘분노의 질주’ OST 발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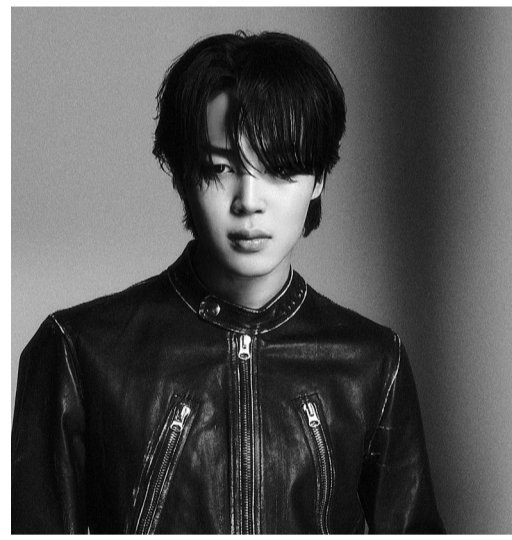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사진)이 참여한 영화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의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 음반이 19일 발매됐다고 음반사 유니버설뮤직이 밝혔다.

음반에는 지민과 미국 아티스트 코닥 블랙, NLE 초파 등이 협업한 힙합 장르의 메인 테마곡 ‘엔젤 파트 1’(Angel Pt.1)을 비롯해 라틴풍의 ‘가솔리나’(Gasolina), 아일랜드 아티스트 더뎬 케네디가 참여한 ‘원트 백 다운’(Won’t Back

Down) 등 21곡이 담겼다.

한국 가수 최초로 ‘분노의 질주’ 시리즈 OST에 참여한 지민은 전날 공개된 이 곡의 뮤직비디오에도 출연했다.

지난 17일 개봉한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데이’는 분노의 질주 시리즈 10번째 작품이다. 돔(빈 디젤 분) 패밀리가 운명의 적 단테(제이슨 모모아)에 맞서 목숨을 건 마지막 질주를 벌이는 이야기다. /연합뉴스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에어가전이 한 곳에!

**벽걸이공기청정기 (36평)**  
DAP-2299\*\*\*\*

**mini air(DAP-0403\*\*\*\*)**  
공기청정기 + 블루투스 스피커

**0420 공기청정기 (13평)**  
DAP-0420ANWG

**S9 공기청정기 (16평)**  
DAP-2216NAWH

소비자만족센터(구입 및 A/S)  
**1544-1154**

**DK**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